



없는 것보단 나아

1. 대통령 국민방미, 주식시장의 반응

- 2011년 10월 이후 거의 12년 만에 대통령 국민방미. 넷플릭스 등 8개 기업이 59억 달러 규모 투자계획 발표
- 미디어 업종을 비롯한 주식시장의 기대나 한국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비해 적은 규모. 방위산업만이 우크라이나 지원 가능성을 기대하며 강세
- 따라서 이번 국민방미 이벤트만으로 국내증시에 영향이 있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

윤석열 대통령 방미 일정 중 발표된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 계획

기업	규모	내용
넷플릭스	25억 달러	K 콘텐츠, 향후 4년간
코닝	15억 달러	소재, 향후 5년간
에어프로덕츠, 플러그 파워	총 19억 달러	수소 생산시설 및 연구개발
온 세미컨덕터, 그린 트워드		반도체 및 장비부품
퓨어사이클 테크놀로지, EMP 벨스타		페플라스틱 재활용 친환경 물류

자료: 대통령실, 언론 보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해 볼 만한 요인은 FDI

-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 기대요인은 미국의 한국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확대 가능성. 2000년대 이후 한국 FDI에서 미국의 비중은 20%대 전후로 유지 중
- 대통령실은 올해 중 비즈니스 라운드 참가기업들의 한국 투자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
- 규제완화와 정책지원 약속 등 한국 투자유인이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달러의 안정적 공급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생각.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았던 이벤트였다는 판단

과거 미국 원조에서 벗어나며 미국의 한국 FDI 비중 점진적 감소. 재차 확대될 가능성 생각해 볼 필요



자료: CEIC,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12년 만에 대통령 국민방미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국민방미(2011년 10월) 이후 11년 반 만에 국민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이후 한미 양국 간 투자 업무협약 및 미국기업의 국내 투자 소식이 발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정치적 의견이나 평가는 배제하고 발표된 사실 자체와 주식시장의 반응을 살펴보고 개별 업종이나 증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한미협력 관계가 지속 강화되는 경우 장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늘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는 경제와 안보였다. 이번에도 그렇다. 지금까지 총 7회의 한국 대통령 국민방미에서 주요 의제 키워드는 늘 경제협력 확대와 동맹 강화였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방미 일정 동안 넷플릭스 25억 달러를 비롯한 기업들의 투자계획 발표와 첨단산업 및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23건의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대통령실에서는 올해 중 추가 투자발표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차트1] 한국 대통령의 국민방미, 주요 의제는 늘 경제협력과 동맹 강화

시기	대통령	주요 의제 키워드
1954년 7월	이승만	통일, 방위, 경제
1965년 5월	박정희	무역, 동맹
1991년 7월	노태우	한국 시장개방, 방위, 남북관계
1995년 7월	김영삼	대북전략 공조
1998년 6월	김대중	한국 경제위기, 안보동맹, 북한개방 공조
2011년 10월	이명박	FTA, 한미동맹 강화
2023년 4월	윤석열	경제협력 강화, 북핵 확장억제

자료: 언론 보도 종합,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윤석열 대통령 방미 일정 중 발표된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 계획

기업	규모	내용
넷플릭스	25억 달러	K 콘텐츠, 향후 4년간
코닝	15억 달러	소재, 향후 5년간
에어프로덕츠, 플러그 파워	총 19억 달러	수소 생산시설 및 연구개발
온 세미컨덕터, 그린 트워드		반도체 및 장비부품
퓨어사이클 테크놀로지, EMP 벨스타		페플라스틱 재활용 친환경 물류

자료: 대통령실, 언론 보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주식시장의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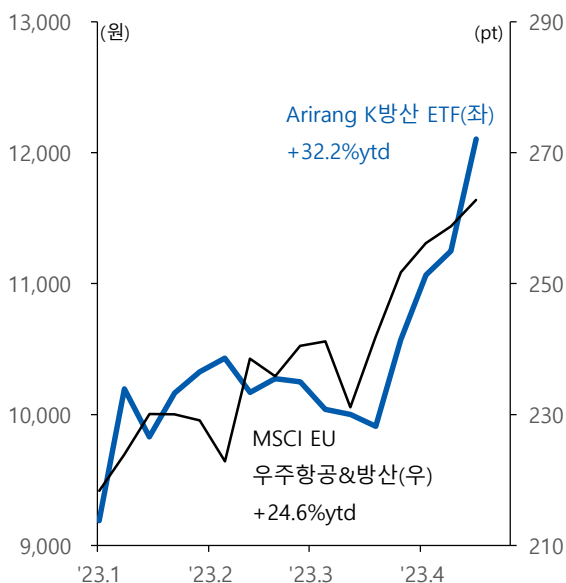
주식시장의 반응은 업종별로 다소 엇갈리는 흐름이다. 최근 국내증시에서 가장 강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분야는 방위산업이다. 한미 동맹 강화와 관련되어 한국의 우크라이나 방위 지원이 발표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배경이다.

연초 상장된 K방산 ETF 가격은 4월 들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초 이후 전일(4/26일)까지 약 32%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유럽의 우주항공&방위산업 지수는 연초 이후 약 25% 상승했다. 즉 한국 방산기업들의 주가는 우크라이나 지원 가능성을 꽤 강하게 반영한 셈이다.

한편, 엔터/미디어 업종에서는 희비가 엇갈린다. 연초 이후 30%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하며 상승장구하고 있는 엔터 업종과 달리 미디어 업종은 부진하다. 특히 넷플릭스의 4년간 3.3조원 투자 발표에도 이렇다 할 반등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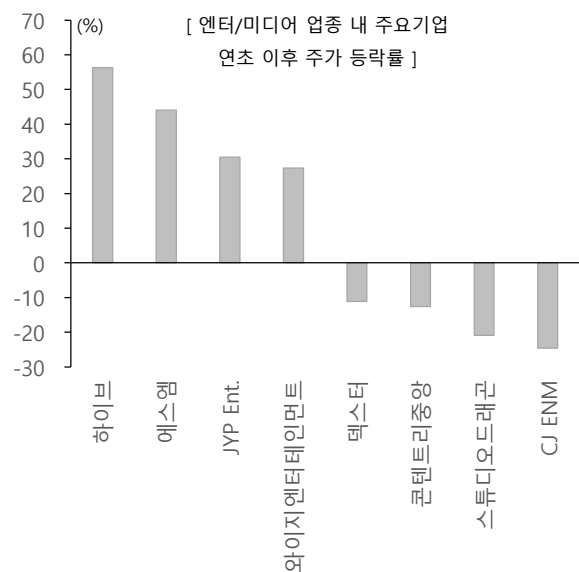
미디어 업종에서는 넷플릭스가 국내에 연간 1조원 이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존재했는데, 4년간 3.3조원은 기대 이하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중기적으로 안정적 투자가 계획된 점이 그나마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차트3]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유럽만큼이나 상승한 K방산 ETF 주가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엔터/미디어 업종 내에서는 희비가 엇갈린 모습. 넷플릭스 투자 발표도 기대에 못 미쳤다는 의미



자료: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해 볼 만한 요인은 F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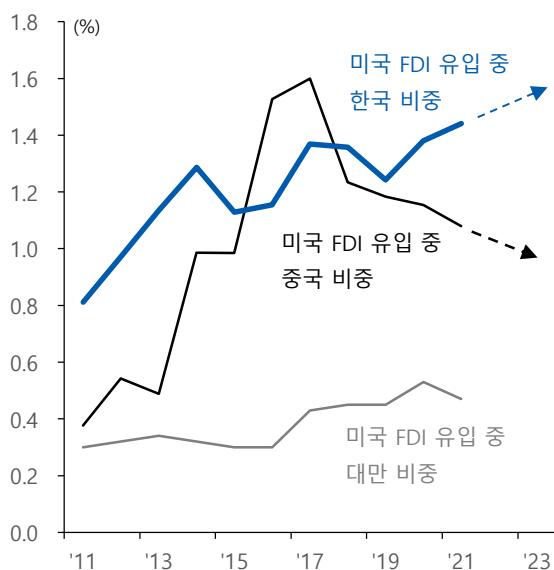
사실 8개의 미국기업이 59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은 그다지 놀랍지 않다. 예컨대 지난 4/25일 공시된 현대차그룹과 SK온의 미국 합작투자규모만 50억 달러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규모가 훨씬 크다.

미국에 유입되는 FDI 중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중갈등이 시작된 2018년 이후로는 중국을 넘어섰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해 볼 만한 요인은 결국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부분이다. 미국의 비중이 과거에는 거의 전부였다면, 2000년대 이후로는 20%대 전후로 유지되고 있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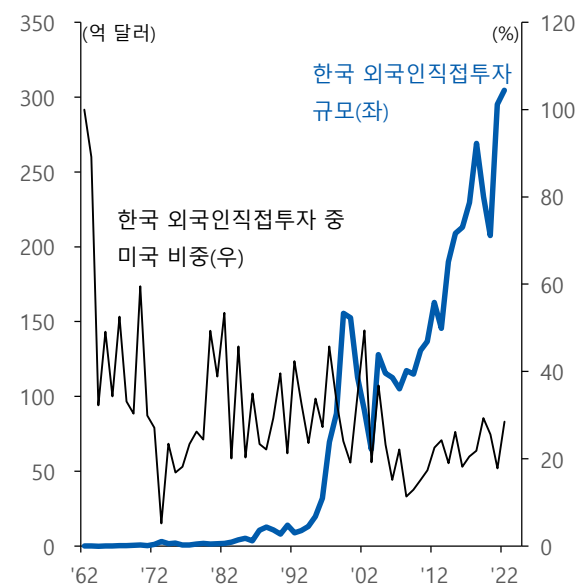
이번달 발표된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동향에서는 미국의 투자가 전분기비 -52.1%, 전년동기비 -13.9%로 감소했다. 대통령실 발표대로 미국기업들의 추가 투자 발표가 이어져 국내 FDI 중 미국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면 아주 장기적으로는 달러의 안정적 공급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차트3] 미국 FDI 유입 내 한국 비중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기업투자 규모로 향후에도 증가세 유효할 전망



자료: CEIC,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과거 미국 원조에서 벗어나며 미국의 한국 FDI 비중 점진적 감소. 재차 확대될 가능성 생각해 볼 필요



자료: CEIC,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